

하늘반 이야기 (8월 3주)



오늘은 자연 놀이 시간이 있는 날이었답니다. 친구들이 모두 등원해서 즐겁게 산외초병설 유치원으로 출발했어요. 줄을 이용해 그네처럼 친구들도 태워주고 공을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도록 이쪽저쪽 튕겨보기도 했답니다. 처음엔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몇 번 해보더니 이제 안 떨어진다고 앞으로 오길 기대하는 얼굴이었답니다. 교실에서 한 후 밖에 나가서도 함께 해보았답니다. (8월 23일 자연놀이)



개학 후 오늘은 아이들이 결석 없이 다 등원 했답니다. 어제 지아가 오지 않으니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오늘은 다 등원하니 선생님도 좋으냐고 물어보는 아이들 귀엽죠~ 함께 하지 못한 시간이 그리웠었던지 영역을 다 돌며 그림도 그리고 블록 놀이도 하고 소꿉놀이도 하며 즐거워 보이는 모습에 저도 행복한 하루였답니다. (8월 23일 자유놀이)



방학 중에 식빵 오징어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친구들이 없다며 다 오면 같이 하자고 해서 아껴둔 요리 시간~ 오징어의 모습을 이야기 나눈 후 재료를 탐색했어요. 몸은 무엇으로 만들까? 다리는 무엇으로 만들까? 이야기를 나눈 후 오징어를 만들었어요. 식빵을 반으로 자르고 잼을 바르고 다리의 수를 세어 보며 치즈를 잘랐어요. 식빵 오징어를 다 만들고 난 후 맛있게 냠냠 먹었답니다. (8월 23일 요리 활동 - 식빵 오징어)